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 골든클럽 회보

## GOLDEN CLUB NEWSLETTER

APRIL 2022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20

### 신년교례회를 마치며



3년 만에 다시 열린 신년교례회,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며 흐뭇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골든클럽 새해 시즌을 시작하였습니다. 전에는 DoubleTree Hotel 최용열(문리대 72)동문의 도움으로 번거롭지 않게 행사를 진행했으나, Pandemic 기간 중 연회장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유대인 단체에 장소를 장기 대여하여 새 연회장은 Atrium of Tenafly, 음료와 식사는 Sheeroo Catering으로 이원화되어 다소 불편했지만 김정필 사무총장이 원활하게 잘 진행하여 다행이었습니다.

개회사, 격려사에 이어 Power Point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김정필 사무총장의 행사 및 회계 보고 등 총회순서가 끝나고, 이준희 회원이 주관한 '작은 음악회'는 만하탄 음대 석, 박사과정 재학 중인 음대 후배들의 열창으로 열띤 환호 속에 진행되었으며, 저녁 식사 후 김광수 회원의 도네이션 사회로 진행된 여흥시간도 흥겹고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9시까지 행사를 마쳐 달라는 관리인 요청에 아쉬움을 남긴 채 막을 내려야 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특별히 준비

한 선물세트를 받아 들고 연회장을 나서는 얼굴에서 즐거운 파티였다는 미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하여 사시미 filet를 푸짐하게 주문해 주신 정해민 선배님, wine를 4 case나 기부해 주신 송학린 선배께 감사드리며, 사시미 뜨느라 회칼을 잘 다루게 된 손대홍 사시미 칼잡이도 고맙습니다.

한해도 거르지 않고 꼭 참석하시던 이준행 회장께서 8주 전 발목부상이 회복 중이어서 이번에 참석 못 하셨지만, "나날이 발전해 가는 골든클럽을 보면서 보람도 느끼며 자랑스럽기도 하다."고 전하시며 행사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조속히 완쾌하셔서 작년 9월 Clearview 골프장 에서처럼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 갖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행사에 관심 두고 참석해 주신 회원들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신 모든 회원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즐거움이 가득하기 기원합니다.

## 4월 21일 첫 골프대회



올해 첫 골프대회를 Sunset Valley Golf Club에서 열게되었습니다. 이후 11월까지 매달 1회씩 골프대회가 있으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날짜: **4월 21일 목 낮 12시 Shot gun** (11시까지 도착)

장소: **Sunset Valley Golf Club**

회비: 개인 \$120 / 부부 \$200

신청: 김정필 201-965-7759

## 4월 산행 안내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다가오면서 화창한 날씨가 야외로 유혹하며, 판데믹의 두려움도 벗어나 그리던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산천초목이 활기를 되찾고 푸르름을 머금은 계절에 Harriman State Park 산길을 함께 걸으며 새봄 맛이를 하고자 하니 연락 주십시오.

일시: **4월 14일(목) 9:00am**

모이는 장소: **PIP exit 4-5** 사이 Commuter Parking Lot

Trailhead: **Lake Skannatati** (출발지점에는 9:45am)

GPS Coordinate; 41.24202, -74.10229

준비물: 간단한 점심 도시락과 마실 물 / Hiking Pole

참가 신청: 홍종만 646-342-2667, hong1945@gmail.com

## 9월 한국여행

2020년 계획했다가 Covid Pandemic으로 무산되었던 한국 여행을 9월 18일부터 11일 일정으로 다시 추진하니 참가할 회원과 관심 있는 분들은 4월 30일 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경비가 엄청 올라 조정 중이지만, 발생경비를 실비로 분담하는 형식이며, 참가 예정인원 규모를 파악하면서 경비내역이 구체화 되겠습니다.

골든클럽 품위에 어울리는 '편안하고 즐거운 고품격 한국여행'을 준비하고자, 손대홍 회원주관으로, 4월 서울방문 길에 전 코스를 직접 사전답사하여 여행 코스와 여정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여행기간:** 뉴욕 출발, 2022년 9/18(일), 한국도착 9/19(월) 한국 여행기간, 9/19(월)-9/27(화), 여행기간 전후 개인별 체류기간 조정 가능

**여행지역:** 서울 출발하여 속초, 영덕, 경주, 부산, 거제, 여수, 진도, 문경, 서울을 일주하며 주변 경승지와 지역 명물 관광 및 맛집 방문

**참가비용:** 4월 30일까지 참가 예정인원을 파악하면서 항목별 계상 예정 왕복 항공비, 숙소는 체류지역 상급 호텔, 식사도 지역 고급 별미 음식으로, 객실은 2인1실 기준, 최고급 관광버스 이용할 예정입니다

**신청 및 문의사항,** 손대홍 201-388-4700, sohn6305@gmail.com  
홍종만 646-342-2667, hong1945@gmail.com

## 입회를 환영합니다.

### 김치갑 (의대72)

Chee Gap Kim

cell: 201-407-9644

email: cheegap@gmail.com

address:

51 Irene Ct,  
Closter, NJ 07624



### 임창우 (사회과학대79)

Chang Woo Yim

cell: 646-457-7310

email: cwiyims@gmail.com

address: 2415 Comner St,  
Fort Lee, NJ 07024



## 회원동정



### 여주영 作品展 - Flushing Town Hall

여주영 회원은 이화여고 재학시절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았지만 2018년 은퇴하면서 본격적으로 유화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이번 작품전(3월 18- 28일)에는 유화 59점과 작년 Guam 여행 때 그린 연필 덧생, 파스텔화 다수를 전시하며 참관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고애자 회원**(사대58)께서 한동안 허리, 다리 관절 통증으로 걷지도 못하고 골프대회는 물론 일반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망서리며 고심하던 끝에 지난 2월 25일 Mt. Sinai 병원에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CareOne at Teaneck Rehab에서 재활 치료 중이시다. 퇴원 후 몇 주 정도 하지 근력 강화 등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4월부터는 골든클럽 행사에 열심히 나서겠다고 다짐하고 계시다



**김정필 회원**(공대71)의 배우자인 강해미 박사가 디렉터로 있는 언더우드 오케스트라의 16회 연주회가 팬데믹으로 인한 2년의 공백을 깨고, 3월 13일 초대교회에서 뉴브런즈워 언더우드 세계선교센터 후원 모금 음악회 연주회를 가졌다. 오랫동안 열린 연주회에서 아직 마스크를 쓴 청중들과 직접 연주로 듣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성악곡은 그동안의 갈증을 충분히 해소 할수 있는 좋은 연주회였다. 골든클럽의 음악 애호가 동문들이 손경택 전임 회장과 홍종만 회장 부부, 금영천 뉴욕 지부 회장 부부등 20 여명이 참석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냈다.



**김중울(사대51) 회원:** 손녀 Katie Kim (25)이 생전 처음으로 3월 20일에 열린 NYC Half marathon에 참가하여 1시간 52분의 좋은 기록으로 완주하였다. 왼쪽 사진 Katie 오른쪽에 초록색 상의를 입은 분이 외동따님 Michelle Kim이다. 축하합니다.

# Covid 판데믹을 헤치며 지난 3300 마일의 여정 - 귀향

■ 홍선경(의대58)

1월 29일에는 다음 날 아침에 떠나는 조달훈 부부와 같이 Amelia Island를 일주한 다음 헤어져서 우리는 둘만 남았다. 골프는 더 칠 기력이 없었으나 그동안 나의 다친 오른쪽 무릎이 날이 갈수록 치유되어서 처음에 찢어졌던 것이 다 없어졌고 나의 지병인 류마티스 관절염도 연속적 골프 플레이에도 flare up하지 않은 것이 이상스러웠다. 2020년에도 3, 4일만 골프치면 부어오르던 것과는 정말 달랐다. 아마 이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 pitch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지난 일, 이주 동안에 동년배 친구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을 두번이나 경험하여서 조용히 있을 때는 자꾸 그들을 생각했다. 이름없는 나무나 풀을 볼 때도 그들과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를 게 없어 그런 대로 그들처럼 햇빛 아래 감사히 살다가 어느 날 끝이 난다는 것을 받아 드렸다.

Amelia Island를 떠나기 전날 Jacksonville에 사는 남편 누님의 딸 내외를 전화로 연락하여 다음 날이 조카의 생일인 것을 알아서 Ritz Carlton Coquina에서 점심을 약속했다. 그들과는 십여 년 전에 만나고 지난 번에 왔을 때 생각 못해 못 만나고 간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만나고 서로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살아있으면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겠지! 조카 내외와 점심을 끝내고 돌아와서는 밀린 빨래를 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 다음 행선지는 Myrtle Beach, SC로 며칠 전에 Upstate New York에서 내려와 겨울을 지내는 후배 임웅규(의대 63)와 연락이 되어 다음 날 아침에 골프 예약을 하였으나 일기예보가 30°F 이기에 골프는 단념하고 만나서 몇 시간 이야기만 하다 다음 행선지인 Annandale, VA로 떠났다. Myrtle Beach에 도착해서는 오랜만에 Our Lady Star of the Sea성당을 찾아 미사를 드린 다음 고인들의 명복을 빌어 드렸다.

Annandale에서는 동기 동창인 이 웅만과 이 중오를 만나서 한강이라는 한국 음식점에서 점심을 같이하려 나갔다. 식당 근처에는 한글로 쓴 간판이 즐비했고 식당도 한국 사람으로 만원이었다. 그래도 Florida보다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훨씬 많이 보였다. 우리도 여행하면서 Myrtle Beach에서 그리고 Annandale에서 quick테스트를 하면서 맞나는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친구들도 Omicron 이후에 한 번도 만나지 않다가 오랜 만에 만난다고 반가워하였다. 우리는 이번에 별세한 박 세준 동기를 생각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막걸리 한 잔씩 들면서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를 외치며 서로의 건강을 빌며 오늘이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젊은 날인 것을 환기시키며 활발하게 살자고 올린 toast였다.

Washington DC 근교를 지나 이제까지 줄곧 운전해 해온 남편을 위해 나머지 New Jersey의 120 miles을 내가 운전하며 비가 부슬부슬 오는 Fort Lee에 도착한 것이 저녁 6시경, 우리는 Covid pandemic을 헤치며 거의 3주 동안 무려 3,300 mile을 달리고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 신년교례 이모 저모

모임때 찍었던 많은 사진들을 골든 클럽 카페 <https://cafe.daum.net/snugoldenclub>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임원 및 고문 소개



작은 음악회 공연



음대 동문 트리오



김광수회원의 여흥시간

## A Good 'Vibes' - Lyrics for April Smart 멋진 '느낌' - 그럴듯한 '사월 노래'

■ 이홍빈(의대 57)

(The) Spring's  
 The flowers henceforth  
 To smear with colors covering the earth  
 hitherto  
 Caressed by April haze  
 Buds of life're so to engage  
 Life's thus embracing the 'Vibes'

(The) Duty's  
 Being carried out well  
 Naturally among  
 The faithful민쁜이 들  
 To be said  
 A 'Good Vibe' like of April  
 (The) Obliger's  
 Depicting spread well  
 In midst  
 The family (to be)sustained  
 Embracing peace and  
 Caressing heart warming  
 (The) Moral's  
 Superseding  
 Humans  
 To be honored  
 Evermore  
 High above close to the divine



(The) Love's to be sung along  
 'Plasir d'Amore's  
 Said but a moment  
 Though  
 'Dolor d'Amore'd twitch deep under  
 To endure such ever lingering  
 (The) Bloom's  
 As such of scattered the revered  
 Molding unwitting a laughters  
 Fulfilling lives  
 Utterly  
 For the prosperous adrift  
 Humans in peaceful a horizon oh sure

To be prayed aground for good  
 For so long to eternity savoring the gifted  
 Like hikers wend(ing) along  
 Curvings and turnings aloft

Oh lives bliss alike commencing April  
 Amassing a great purpose ours  
 It's of absolute a rays of April sun  
 Smeared with colorful a joys for  
 Precious lives to be lived the  
 Fullness near to the divine  
 To sing along and  
 Dance along all the blisses all the more.

# 골든클럽, 한국의 맛과 멋을 찾아서

■ 손대홍 (미대79)

2019년 초 그 해 가을로 계획되었던 골든클럽의 단체 한국여행계획은 제 노트북 속에서 잊혀진 파일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 가끔 떠올려보기도 했지만 2년 넘게 계속된 COVID-19의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만큼, 골든클럽 한국여행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2022년 가을에는 골든클럽의 많은 회원들이 한국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선부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백신의 영향으로 오미크론으로 바뀐 바이러스의 위력도 많이 낮아지고 전문가들도 올해 안에는 COVID-19이 끝날 것이라고 하니, 조심스럽지만 가을쯤이면 한국 여행도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일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가 만들어 놓았던 일정을 한국의 국내 여행 전문 업체에게 넘겨 보다 현실성 있는 한국여행일정을 만들어 보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은 일정을 세우기도 어려웠던 것이, 한국은 여행사의 대부분의 문을 닫았고 호텔이나 식당도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8박 10일의 한국여행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운 것이지 계획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골든클럽 회원 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관광지와 일정이 있다면 반영해서 더 좋은 한국여행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JFK를 출발하여 9월 19일 저녁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첫날은 서울대학교 내에 있는 호암회관이라는 호텔에 머물려고 합니다. 다음날 캠퍼스를 잠시 둘러보고 강원도 속초로 출발합니다. 속초에 가서는 2박3일을 머물 예정입니다. 통일전망대에 올라 멀리 보이는 금강산과 해금강을 보고 또 설악산을 케이블카로 올라 동해 바다와 설악산, 그리고 푸른 바다가 어우러지는 전망을 보고 식사는 해산물 위주의 유명 맛집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해안의 절경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강구항에 들러 영덕대게도 먹고 천년의 고도 경주로 가서 1박을 하며 관광을 하고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로 가서 예전 동해남부선을 따라 만들어진 관광열차를 타고 송정 바닷가를 둘러 저녁식사를 하고 유명한 동래온천에서 숙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날 아침은 아마도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온천욕탕에서 온천욕을 즐기고 거제도, 통영을 거쳐 여수로 갈 예정입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여수 밤바다를 즐길 수 있는 최고 풍광의 호텔에서 1박을 하고 아름다운 진도로 향합니다. 회원 한분께서 흥도를 가자고 하셨지만 배멀미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 이제는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진도에서 1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예약이 쉽지 않은 절경의 호텔에서 진미를 즐기며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문경새재로 향합니다. 이동시간이 제법 길지만 가

는 길에 전주에 들러 전주의 자랑 비빔밥을 먹고 경북 문경으로 가서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날, 조금 이를 지는 모르지만 문경에는 내국인도 먹기 쉽지 않은 감홍이라는 사과를 즐길 수 있고 오미자도 맛보며 과거를 치러 선비들이 오르던 문경새재를 차로 돌아보고 서울로 가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 한국에서 추가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부터 개인일정을 시작하실 수 있고, 일정의 종료와 동시에 귀국을 하시는 분들은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곳의 호텔에서 1박을 하시고 다음날 오전 10시 항공편으로 돌아오시게 되는 일정이니 9박 11일의 일정이 됩니다.

여기서 전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행의 제목이 ‘한국의 맛과 멋을 찾아서’인 것처럼, 관광지도 지역마다 추억에 남을 아름다운 곳을 골랐고, 식사는 내국인들도 가고 싶어하는 맛집만을 선정하였으며, 호텔은 쾌적하고 전망이 뛰어난 곳만 골랐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참가하시는 분마다 복용하시는 약, 갖고 계신 질환,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 등도 파악을 하여 지역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병원 정보도 준비해놓을 예정입니다. 전 일정은 고급 리무진 버스로 이동을 하며 미국에서의 출발 일정이 다른 분들은 한국에서 합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걱정은, 팬데믹이 올해 상반기로 끝나는 것을 가정할 경우 후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여행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항공권이나 호텔예약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여행업계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여행 참가신청을 4월말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 가을 골든클럽, 한국의 맛과 멋을 찾으러 떠나보겠습니다.



## SCHEDULE

일자	이동	식사			주요 일정
		조식	중식	석식	
1일자 9/18(일)	JFK 출발		기내식	기내식	10:30 JFK 집합 및 체크인
2일자 9/19(월)	인천공항-서울대			호텔	서울대 관악캠퍼스 내 호텔 투숙 호텔 도착 및 저녁식사
3일자 9/20(화)	서울대-속초	호텔식	막국수	생선회	관악 캠퍼스 견학 통일전망대
4일자 9/21(수)	속초	호텔식	초당순두부	가자미조림	설악산 케이블카 탑승 및 관광 해비치공원, 양양 비치 시티투어
5일자 9/22(목)	속초-영덕-경주	전복죽	영덕대게	한정식	이동 중 영덕(강구에서 중식) 경주, 보문단지 관광
6일자 9/23(목)	경주-부산	호텔식	포항물회	생선회	경주 관광 해운대, 송정 관광 (관광열차 탑승)
7일자 9/24(금)	부산-거제도-여수	북국	굴국밥	하모사브	거제도 관광 여수 관광
8일자 9/25(토)	여수-진도	백반	한정식	회정식	진도 관광 저녁 파티
9일자 9/26(일)	진도-문경	호텔식	전주비빔밥	한우갈비	전주 경유 문경 도착
10일자 9/27(월)	문경-서울	호텔식	산채비빔밥		문경새재, 와이너리 서울도착, 해산

# Korean & American -

## 1. 한국에서의 이야기

■ 우규환(사대 60)

골든클럽회보 편집팀이 매월 상당한 분량의 회보를 시간에 맞추어 발간하는 노력과 정성이 고마워 지난 것도 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다. 김영덕 박사의 “6/25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며” (회보 100호 7-9면, 2020년 8월)를 읽으면서 한국현대사의 진면목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글쓴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였던 하찮은 일이지만 일기장처럼 적어보려고 한다. 비록 하찮은 기억들이라도 기록은 남길 가치가 있다는 말을 음미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배경을 공유하고 싶다.

풍기국민학교 4학년 교실에서 점심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였다. (1948년 봄)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밖을 내다보니 군인 2명이 쓰리쿼터 차에서 가마니를 끌어내리고, 가마니에서 무언가 끄집어 내는데 목이 잘린 사람의 머리였다. 군인 1명은 머리채를 들고 폼을 취하고 다른 1명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해방 직후부터 남북분단이 되고, 좌우익 사상이 갈려서 경북북부지역에 소위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가 있었는데 내가 다니던 풍기국민학교에도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공비토벌이 그들의 주임무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6학년때인 50년 6월 전쟁이 나서 9/28수복이 될 때까지 학교는 휴교 상태였다. 피란을 가지못한 우리 가족은 뒷마당 쪽에 방공호를 뚫고 UN젯트기 공습을 피했다. 우리집 바로 옆집은 우익이어서 집을 완전히 몰수당하고,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쓰면서 거의 매일같이 인민재판이 열리고 있었다. 인민군들이 각 가정마다 3-4명씩 배치 되어서 숙소를 제공했는데 식사는 그들 본부에서 해결한 것으로 기억된다. 인민군 아이들의 나이가 고작 16살이고 머리를 뽁뽁 깎은 중머리였는데, 꽤 많은 시간들을 그들과 친구처럼 보낸 기억이 있다. 나보다 두세살 위인 형님과 조카들은 의용군으로 끌려갈 위험이 있어서 밤낮 숨어지내곤 했다.



53년 7월 27일 휴전이 될 때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석방,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의 한국방문 등 큼지막한 뉴스가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다. 우리는 그때 중학생으로 “We do not want truce!”를 외치며 휴전반대 데모를 열심히 했다. 생후 처음으로 집을 떠나 안동에서 사범학교를 다닐 때 (54-57년) 자취를 하며 신문배달도 했다. 동아일보 100여부를 가가호호 배달하는데 2-3시간이 걸렸다. 만화 고바우 영감, 황설수설 칼럼, 연재소설 청산리전투, 삼국지 연

의가 인기 절정이었고 자유당 정권에 대하여 바른 말을 하는 야당지를 학수고대하는 독자들의 눈망울을 의식할 수 있었다.

안동사범을 졸업하고 교사발령을 받아 공무원이 되었다. 18세의 신입교사로 내가 졸업한 풍기국민학교에 부임하니 나의 은사 두분이 그 때도 평교사로 계셨다. 신입교사 환영연을 한다고 술집으로 데려갔는데 술집마담을 총각맛좀 보라고 나한테 떼밀어서 민망하기도 하였다. 교사로 근무하면서 대입준비를 하던 59년은 자유당 말기였다. 공무원 3인조(교사-면서기-순경)의 조장이 되어서 오전수업을 마친 오후에는 가정방문을 실시했는데 목적은 여당후보를 찍으려는 설득이었다. 자녀들의 담임선생이 오니 거절을 못하지만 참으로 면구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3/15 부정선거의 전초병이 되었다. 나의 마지막 근무지 국민학교 교장은 내가 입시를 보러 서울에 다녀오는 것을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우 선생, 당신 정신이 있으? 없으? 당신 출타하면 근무지 이탈로 즉시 파면이야!”라고 협박하였다. 나는 파면을 시켜도 좋으니 시험을 보러 가겠다 하고 나온 적이 있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야당 구호와 “갈아봤자 별수없다.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여당구호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민심이 천심이라 하였듯이 1960년 3/15 한 달 후에 4/19가 일어났는데 대학생이 된 우리는 당일 경무대 앞까지 시가행진을 하고 발표명령이 내려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가운데 서울신문사 건물이 불타는 장면을 보면서 나는 신당동 가정교사 집으로 돌아왔다.



가까스로 대학을 졸업하고 ROTC소위로 군복무를 하는 2년동안은 시간이 무척 지루하였다. 젊은 시절인데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대구 제2육군병원에 입원도 하였다. 편도선수술, 치질수술, 포경수술 등 안들이고 필요없는 끝머리는 다 잘라내었다. 대구 공군기지에 근무하는 친구 덕분에 공군수송기를 타고 대구-여의도 왕복을 하는 비행기 탑승 첫 번 기록을 세웠다. 월남전이 한창인 66년 3월 부산해운대 탄약장에서 제대를 하고 대학원에 복학했는데 그 때도 가정교사가 생활의 주요수단이 되었다. 서울대 직업보도소에 가정교사 구직 신청을 해 놓았는데 하루는 연락이 오기를 맹아학교 학생이 수학을 배우겠다 하여 국립맹아학교 기숙사를 찾아갔다. 그 때 만난 학생이 고2 강영우 이다. 그는 나에게 고교 수학 중 기하를 가르쳐 달라 해서 한 두 달 가르쳤는데 나는 열심히 가르치고 그는 참으로 애쓰면서 배웠다. 기하에는 주로 도형에 관한 문제가 많은데 강영우는 점자로 기록하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을 100% 이해가 빨라서 가르치는 보람이 있었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후 U of Illinois Urbana Champaign 캠퍼스 한인교회 부흥회에서 강사로 온 강영우 박사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5월호에 2편 계속)

**회원 명단 (113명 / 2022-3-26)**

강교숙	김병순	최숙희	오유섭	이준희	최수용
강에드	김상만	박희병	오인석	이행순	최순재
강영선	김승호	배상규	유규환	이홍빈	최준희
계동휘	김영덕	성기로	유무영	임도혁	최진영
고애자	김영만	손갑수	윤선구	임창우	최철용
곽상준	김우영	손경택	윤종숙	임호순	최학주
곽선섭	김익성	손대홍/	윤현남	정도현	추재욱
곽승용	김인형	남종현	이강홍	정수일	한영수
구달희/	김정필	손옥화	이상무	조달훈/	한용오
권정덕/	김종윌	송근숙	이 준	조승자	한태진/
홍선경	김창수	송웅길/	이대연	정해민	안용희
권영대	김치갑	송현자	이대영	조상근	허용웅
권태전	김태일	송학린	이범선	주상선	허유선
금영천	김한중	송혜순	이수호	주재양	홍사만
김광수	김현중	신진식	이용대	진봉일	홍정표
김광현	김용면	신응남	이종대	천병수/	홍지복
김동건	민준기	양인회	이전구	천종화	홍종만/
김문경	박기환	오순문	이종석	최구진	홍예경
김문연	박준구/	오용호	이준행	최병우	

**골든클럽 2022년 행사 일람 (2022-3-26)**

1월	23~29일	플로리다 골프트립 (12명 참가)
3월	3월 26일(토)	신년교례회 - Atrium of Tenafly (81명 참가)
4월	4월 14일(목)	Hiking - Lake Skannatati
	4월 21일(목)	Opening Golf Outing
5월	5월 18일(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5월 26일(목)	여성회원 피크닉
6월	6월 9일(목)	Golf Outing
	6월 16일(목)	Zoom seminar (슬기로운 supermarket)
	6월 23일(목)	Picnic - Rockland Lake State Park
7월	7월 14일(목)	Golf Outing
	7월 16일(토)	컴퓨터 연구원 피크닉
	7월 28일(목)	Barnes Museum Tour, Philadelphia
8월	8월 11일(목)	Golf Outing
9월	9월 15일(목)	Golf Outing
	9월 18-30일	한국방문여행
10월	9월 24일(토)	뉴욕지역동창회 Picnic
	10월 12일(수)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10월	10월 20(목)	Harriman State Park 산행
11월	11월 3일(목)	Golf Outing
12월	12월3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1월	22-28일	골프트립, West Palm Beach, Florida
3월	3월25일(토)	신년교례회

**2022년 연회비 납부 명단 (59명 / \$5900/ 2022-3-26)**

강교숙	김종윌	성기로	신진식	오용호	최철용
강에드	김창수	손갑수	오유섭	윤선구	한용오
강영선	김태일	손대홍	이강홍	윤현남	한태진
권정덕	김치갑	남종현	이대연	이대영	안용희
계동휘	김정필	손경택	이용대	이종대	홍선경
금영천	김한중	송근숙	이전구	진봉일	홍종만
김광수	민준기	송웅길	이종석	정도현	홍예경
김동건	박기환	송현자	이행순	정해민	홍정표
김문경	박희병	송학린	임창우	최순재	홍지복
김상만	배상규	신응남	임호순	최준희	

**2022년 후원금 기부 명단 (22명 / \$9900 /2022-3-26)**

강에드 300	김한중 300	신진식 300	이종대 200	한태진 500
권정덕 200	송학린 1000	오용호 300	이행순 200	홍종만 1000
금영천 300	성기로 300	오유섭 100	임호순 300	
김승호 1000	손경택 1000	이강홍 200	정해민 500	
김종윌 200	신응남 500	이전구 1000	최철용 300	

**2022년 입회비 납부 명단 (4명 / \$800 /2022-3-26)**

김치갑	송혜순	임창우	허유선
-----	-----	-----	-----

**발전기금 기부명단 (1명 / \$20,000 /2022-3-26)**

이준행 20,000

**4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성기로(약대57) 최철용(농대57)  
 신원철(대학원) 홍지복(간호70)  
 오인식(법대58)  
 유무영(공대66)  
 이준희(음대95)  
 진봉일(공대50)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뉴욕: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뉴저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 - 오후 1시  
 Zoom video 강의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 양인회 (917-494-0223)  
 홍종만 (646-342-2667)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T) 201-965-7759 (E) jaypkim@keiusa.com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주소 (Home): \_\_\_\_\_

입회비 \$200  
 연회비 \$100  
 후원금 (\$) \_\_\_\_\_